FX Market Daily

2026-11-11

전일동향

수출업체 네고물량에...1,344.50원에 마감

10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,347.10(15:30 기준)에서 5.60원 하락한 1,341.50(07:00 기준)에 개장했다.
환율은 주간거래에서 수출업체 네고 물량에 낙폭을 확대했으나 뉴욕장에서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에 상승해 1,344.50원에 종가(07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3.1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45.41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341.50	1347.70	1334.60	1344.50	1343.30
엔화	848.55	852.61	844.31	845.41	-
유로화	1503.78	1512.00	1496.69	1498.35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0.72	-3.14	-6.96	-15.63
결제환율(수입)	-0.34	-1.9	-4.85	-11.96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美 긴축 가속화 우려에...1,34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9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37.50, 15:30 기준) 대비 5.50원 상승한 1,342.1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강달러에 상승 전망한다. 연준 지도부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12월 FOMC에서 최소 25bp인상을 언급하면서, 10월 CPI가 전월 대비 0.3% 이상 상승할 경우 50bp 인상하는 빅스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이후 발표된 미국의 10월 CPI가 시장 예상을 웃돌고, 월러 이사가 제시한 기준마저 충족하면서 시장 내 긴축 가속화 우려가 확산되었다. 이는 위험회피 심리와 달러 강세를 자극해 금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다만,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추가 공습 자제 방침에 WTI 국제 유가는 0.47% 하락하는 등 중동 갈등 진정 기대는 강달러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고, 수급상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 유입은 상승 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37.60 ~ 1349.8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4439.08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.50원↑
	■ 美 다우지수 : 52231.89, -157.86p(-0.3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212.88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2069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